

〈참고자료〉

제네시스 ‘G70 트랙 데이 스페셜 콘셉트’ 최초 공개

- 트랙 주행 감성 담은 콘셉트 모델로 브랜드의 고성능 영역의 확장 의지 표현

- 22일부터 제네시스 캐나다 전역서 순회 전시 예정

○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G70 트랙 데이 스페셜 콘셉트(G70 Track Day Special Concept)’를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1일 밝혔음.

○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운영 중인 ‘제네시스 트랙 택시 노르트슐라이페(Genesis Track Taxi Nordschleife, 이하 제네시스 트랙 택시)’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된 이 콘셉트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성능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G70가 가진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강조함.

○ ‘제네시스 트랙 택시’는 드라이빙 트랙에서 전문 드라이버(인스트럭터)가 고성능으로 튜닝된 G70 3.3T를 운전하고 일반 고객이 동승해 다양한 주행 조건과 극한의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이번 콘셉트의 외관은 ‘제네시스 트랙 택시’ 차량 디자인을 재해석했으며, 전면 펜더와 후면에 적용된 'Nordschleife' 레터링은 ‘그린 헬(녹색 지옥)’로 불리는 뉘르부르크링 트랙에 대한 도전 의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음.

○ 성능 측면에서는 ‘제네시스 트랙 택시’에 사용되는 G70 차량과 동일한 서스펜션과 휠이 장착되었으며, 후드에 위치한 에어벤트, 앞뒤 범퍼의 토우 케이블, 대형 wing 스포일러 등을 추가해 스포츠카다운 모습을 갖췄음. 타이어는 19인치 미쉐린 스포츠 4S가 적용됐음.

○ ‘G70 트랙 데이 스페셜 콘셉트’는 오는 22일 캐나다 온타리오주(Ontario) 마크

햄시(Markham)에 위치한 제네시스 마그햄(Genesis Markham) 전시장을 시작으로 캐나다 전역에 위치한 제네시스 전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임. [끝]

<사진설명> 제네시스, ‘G70 트랙 데이 스페셜 콘셉트’ 최초 공개

사진 1~5) 1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 공개된 ‘G70 트랙 데이 스페셜 콘셉트(G70 Track Day Special Concept)’차량의 모습